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93 호

2024년 8월 21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Monthly Insights 8 월호 요약
2. 2024 UNGC Korea Leaders Summit 안내(11/5)
3. 2024 UNGC 공공기관 네트워크 안내(8/29)
4. 2024 UNGC 사회공헌 실무그룹 안내 (9/11)
5. 2024 하반기 ESG 팀장 네트워크 안내(9/27)
6. TGE Round 5 런칭 기념 조찬 간담회 개최 결과(7/25)
7.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AA) 2 차 워크숍 결과(7/16)
8. 2024 반부패 실무그룹 2 차 미팅 결과(7/12)
9. 2024 지속가능금융 실무그룹 2 차 미팅 결과(7/11)
10. [CoREi 세미나] '재생에너지 24/7(실시간 매칭) 조달 개념과 현황' 결과(7/10)
11. 인권 실무그룹 2 차 미팅 결과(7/4)

■ 본부 소식

1. UNGC, 아시아 & 오세아니아 지역의 지속가능경영 촉진
2. UNGC 및 아프리카 연합 위원회 간 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 아프리카 비즈니스 이니셔티브(GABI)' 활성화
3. 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안내(9/24)

■ 회원사 ESG 우수사례

[UNGC 회원사 ESG 우수사례] BNK 금융

■ UNGC & 회원사 뉴스

1. DS단석, 'UNGC' 가입... 글로벌 수준 ESG 경영 본격화
2. 신한은행, 2500억원 규모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3. 포스코, 중소기업 금융지원 20년... 동반성장과 ESG 경영
4. 늘어나는 여성 리더... SK하이닉스 '리더십 다양성' 앞장
5. “생물다양성의 최대 적은 무관심”... 멸종위기종 보전 나선 현대제철

■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UNGC 로고 사용정책
4.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Monthly Insights 8 월호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VOLUME 47 | August 2024

웹에서 보기

Monthly Insights



■ 목 차 ■

1. 소셜(Social) 이슈의 부상과 기업 대응
2. 전문가 인사이트 : Bloomberg - ESG 중 'S' 요소의 측정 동향 및 중요성
3. ESG 최신 동향
 - LGBTQ+(성소수자)와 동행하는 기업 시민의식
 - M&A 거래에서의 ESG 실사: 리스크에서 가치 창출로
4. 한국협회 소식 | 본부 소식
5.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이번 먼슬리 인사이트에서는 'Shift'의 발간물 시리즈 'Strengthening the S in ESG'를 바탕으로, 소셜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 국제 표준과 투자 흐름 및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알아보고, 소셜 분야의 공시 대응 관련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1. 소셜(S) 이슈에 주목하는 국제 표준 및 투자 흐름

1.1 국제표준

국제지속가능보고기구(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인권과 노동권 보호, 노동자에게 적절한 조건과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노동 관련 주제의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22년 9월부터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비정규직 비율 등 고용형태, 근로시간 및 임금격차 정보, 노동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변화에 대한 노사협의 등의 데이터를 포함한 '고용 관행 및 조건' 관련 주제의 개정 초안을 공개하며, 10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의 경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우선순위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26년까지 인적자본에 대한 위험과 기회 및 공시 관련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업 자체 인력 및 가치사슬 내 근로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인권 및 노동 관련 분야도 매우 중요하므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의제 협의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문을 통해 ①소셜(S) 이슈에 주목하는 국제 표준 및 투자 흐름을 통해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요구사항과 ②기업의 소셜 이슈에 대한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와 함께 모범기업사례와 관련 공시 흐름을 통해 ③기업의 소셜(S) 분야 성과를 강화하기 위한 여섯 가지 대응 방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UNGC 한국협회 발간물 '기업과 인권 지침서'



<그림 3: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의 SDGs를 위한 CFO 연합>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지난 6월, '기업과 인권 지침서'의 2차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지침서는 UNGC 10대 원칙, UNGPs 및 OECD 기업책임경영에 관한 실사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심층 연구·조사하였고, △국내외 동향 및 주요 가이드라인,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 △인권 실사 이슈별 체크리스트 3권으로 구성하여 인권 실사의 각 요소별 세부 지침을 구체화하고, 최신 국제 규범 및 기준 반영, 글로벌 기업 사례를 추가하였으며,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이슈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14개 이슈별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인권 지침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홈페이지(회원자료를)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이 회원사의 인권경영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지난 6월 발간한 '기업과 인권 지침서'의 2차 개정판을 소개합니다. 지침서는 △국내외 동향 및 주요 가이드라인,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 △인권 실사 이슈별 체크리스트 3권으로 구성되었고, 본 가이드라인은 회원사의 인권경영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블룸버그(Bloomberg)는 방대한 경제·금융 데이터와 시장에서의 폭넓은 영향력을 활용해 전문가들이 모여 인사이트를 나누는 '블룸버그 라이브(Bloomberg Live)' 이벤트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문가 인사이트에서는 ESG 중 'S' 요소의 측정 동향 및 중요성을 주제로 한 블룸버그 Equality Summit의 'Measuring the Impact of 'S' in ESG' 세션 패널들의 인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캐서린 하워스(Catherine Howarth)

| ShareAction CEO

- * 책임있는 투자 및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를 장려하는 영국의 ESG 주주행동주의 비영리단체



줄리 모렛(Julie Morret)

| Northern Trust Fund 투자 스튜어드십

글로벌 책임자

- * 전 세계 기업, 기관 및 개인에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3대 신탁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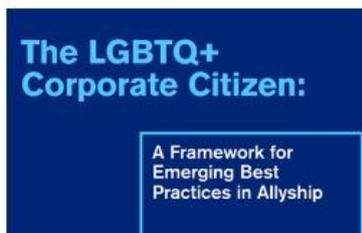
소보나 데이-고인스(SoVonna Day-Goins)

| 前 Credit Suisse 사회적 지속가능성 책임자

- * 기업 투자은행, 개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위스 글로벌 투자은행

다음으로 <전문가 인사이트>에서는 ESG 중 'S' 요소의 측정 동향 및 중요성을 주제로 한 블룸버그 Equality Summit의 'Measuring the Impact of 'S' in ESG' 세션 패널들의 인사이트를 소개합니다.

ESG 최신 동향



LGBTQ+(성소수자)와
동행하는 기업 시민의식

자세히 보기



M&A 거래에서의 ESG 실사:
리스크에서 가치 창출로

자세히 보기

<ESG 최신 동향>에서는, Human Rights Campaign 이 발표한 'LGBTQ+(성소수자)와 동행하는 기업 시민의식 보고서'를 살펴보고, KPMG 가 진행한 'M&A 거래와 ESG 실사간의 연관성' 관련 글로벌 연구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

- "기업, UNGC 이니셔티브 통해 인류-지구 장기적 번영 기여"

○ UN이 주도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항목이 새로운 국제사회 가이드라인으로 부상하면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이 경영전략에 내재화하도록 권장하는 세계 최대의 기업-시민 이니셔티브인 유엔글로벌컴팩트(UN Global Compact, 이하 UNGC)가 관심을 끌고 있다. 지속가능성 부문 전문 미디어 'SDG뉴스'는 내년 UNGC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유엔철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과 ▲UNGC 한국협회 주요 업무, ▲지속가능발전 증진 방안, ▲SDGs 관련 기업 전략, ▲국내 ESG확산 원인, ▲기업의 생물다양성 리스크 대안 등 글로벌 지속가능성 이슈 관련 다양한 현안과 해결방안을 다뤘다. 한편, UNGC는 기업이 비즈니스 운영, 공급망 및 가치사슬, 포트폴리오를 통해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생물다양성 보호와 생태경영을 실천하며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끝으로 <뉴스로 보는 ESG 트렌드>에서는, ▲국제 기후목표 인증기관 탄소상쇄 인정 않기로, 기업 '그린워싱'도 제동 걸려, ▲'성별임금격차·저출생' 월드컵이온 한국...OECD, 11 가지 대안 제시, ▲'ESG 평가보상' 있는 기업은 단 10%...“적극 도입해야” 등 ESG 동향 관련 주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nthly Insights 는 회원사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회원사 실무진들에게 발송됩니다. Monthly Insights 관련한 문의 및 제안사항은 gckorea@globalcompact.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조연경 과장, 직통번호: 070-4327-9767)

[자세히 보기](#)

2. 2024 UNGC Korea Leaders Summit 안내(11/5)

The poster features a scenic background of a traditional Korean palace (Gyeongbokgung) with a prominent tower (Gyeongbokgung Tower) on a hill, surrounded by lush green trees. The text is centered and overlaid on the image. At the top, there is a logo for UN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The main title is '2024 UN GLOBAL COMPACT KOREA LEADERS SUMMIT' in large, bold, white letters. Below the title, it says 'ESG +20 YEARS ANNIVERSARY'. The event details are listed: '일정 | 2024년 11월 5일(화) 09:30 ~ 17:00' and '장소 |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 The main announcement states that the UNGC Korea Chapter is celebrating its 20th anniversary on November 5th and is hosting the 'Korea Leaders Summit'. The text describes the summit as a high-level event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ESG experts and business leaders to discuss the future of ESG. It mentions the 'Who Cares Wins' report and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SG concept. The summit is a platform for companies to share their ESG journeys and discuss future directions. It is open to UNGC member companies and their employees, as well as anyone interested in ESG.

UN GLOBAL COMPACT
Network Korea

2024
UN GLOBAL COMPACT
KOREA LEADERS SUMMIT

ESG +20 YEARS ANNIVERSARY

일정 | 2024년 11월 5일(화) 09:30 ~ 17:00

장소 | 콘래드 서울 그랜드볼룸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ESG 20주년을 맞아 11월 5일,
『Korea Leaders Summit』을 개최합니다.

『Korea Leaders Summit』은 국내 최대 기업 지속가능성 컨퍼런스로서,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 국내외 지속가능성 이슈 전문가 및 기업 대표들이 연사로 참여해
기업 지속가능성을 내재화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리더들을 위해
UNGC가 추구하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원칙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ESG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과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UNGC의 'Who Cares Wins' 보고서를 통한 'ESG' 개념 제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2024 Korea Leaders Summit』은 지난 20년 동안의 ESG 여정을 돌아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기업들이 나아갈 길과 기여방안을
함께 점검하고 고민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UNGC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 안내

- UNGC 회원사 참여: 무료 (회원사당 최대 4인)
- 비회원사 기업 및 개인 참여: 기업 50만원 (기업당 최대 3인), 개인 25만원
- 사전 신청: [1차] 9월 27일(금) 까지 / [2차] 10월 31일(목) 까지

오전

시 간		프로그램
09:30 - 09:35	5'	개회사 이동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회장
09:35 - 09:40	5'	축사1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명예회장
09:40 - 09:45	5'	축사2 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영상)
09:45 - 09:50	5'	특별 메시지 George Kell 前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現 Arabesque Partners 회장 (영상)
09:50 - 10:10	20'	기조연설
10:10 - 10:20	10'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LEAD 기업 세리머니
10:20 - 10:25	5'	CFO Coalition for the SDGs 참여 세리머니
10:25 - 10:40	15'	특별 공연
10:40 - 11:40	60'	특별 세션1: Who Cares Wins 20주년 토크 콘서트
11:40 - 13:00	80'	휴식 및 오찬

오후

시 간		프로그램	
13:00 - 13:25	25'	특별 서베이: UNGC X 리멤버 - ESG 인식 조사	
13:25 - 14:00	35'	특별 강연: DE&I 강의	
14:00 - 14:10	10'	휴식 및 분과 이동	
14:10 - 15:20	70'	분과1 (*CoREi 공동주최) 재생에너지 투자	분과2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주최) 데이터 경제에서의 인권 리스크 관리
15:20 - 15:30	10'	휴식 및 네트워킹(커피 브레이크)	
15:30 - 16:40	70'	분과3 그린워싱과 기업 대응	분과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 투자와 지속가능금융
16:40 - 16:50	10'	휴식 및 본 회의장 이동	
16:50 - 17:10	20'	특별 세션2: UNGC X 서울대학교 지속가능경영학회 - 기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청년 인식 조사	
17:10 - 17:25	15'	럭키 드로우 이벤트	
17:25 - 17:30	5'	폐회사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tel. 02-749-2182/2149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3. 2024 UNGC 공공기관 네트워크 안내(8/29)



안녕하십니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입니다.

공공부문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역할과 내재화 요구가 민간부문의 ESG 공시 동향을 반영하여 경영평가 및 통합공시제도에 추가되는 등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공공기관이 ESG 경영 및 공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경영 실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며, 공공기관이 직면한 도전 과제와 기회를 탐색하고 함께 논의하고자 '2024 공공기관 네트워크'를 개최합니다.

공공기관 실무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2024 공공기관 네트워크
- **주 제:**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기관의 ESG 전략과 경영평가 대응
- **일 시:** 2024년 8월 29일(목) 14:00 - 17:30
- **장 소:** 바비엡2 교육센터 그랜드볼룸(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14, 바비엡2 B1층)
- **대 상:** 회원사 공공기관 실무진(기관당 최대 2인)

| 등록 방법

- 아래 QR코드 또는 '참석 신청하기' 링크를 통한 참석자 정보 제출



※ 기관당 최대 2인, 선착순 마감

※ 사내 보안정책등으로 링크 접속이 어려운 경우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신청해주시거나,
기관명/부서/성함/직함/이메일/연락처를 기재하여 gckorea@globalcompact.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4:00 - 14:02 (02')	행사 소개 및 참석자 안내
14:02 - 14:05 (03')	인사말
14:05 - 14:35 (30')	[세션 1-1]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의 ESG 중요성과 향후 트렌드 - 김동현 공공기관 평가단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14:35 - 15:05 (30')	[세션 1-2] 해외 공공기관의 ESG 사례 분석과 국내 적용 방안 - 이태호 한국ESG평가원 전문위원
15:05 - 15:20 (15')	휴식
15:20 - 16:30 (70')	[세션 2-1] 공공기관 유형별 ESG경영 우수사례 공유 -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16:30 - 17:25 (60')	[세션 2-2] 참여기관 활동 공유 및 네트워킹
17:25 - 17:30 (05')	마무리 및 협회 활동 안내

※ 프로그램 내용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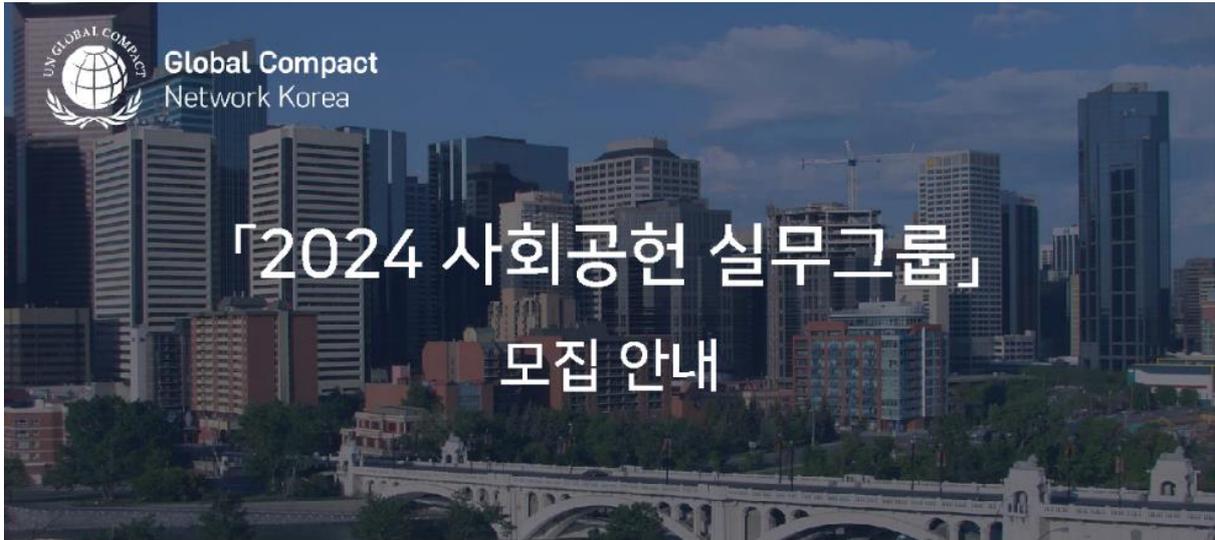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Tel. 02-749-2149/21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4. 2024 UNGC 사회공헌 실무그룹 안내 (9/11)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기업/기관의 지속가능성 이슈 내재화를 지원하고, 국내외 동향 및 주요 아젠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지식 공유 및 동료 학습 플랫폼인 실무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사들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지원하고,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간 상호학습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공헌 실무그룹**을 신설하였습니다.

오는 9월 11일 (수) 1차 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니 실무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사회공헌 실무그룹 개요

사회공헌 실무그룹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전략과 동향을 논의하고, SDGs 중심의 집합적 임팩트 창출 방안 모색

- **대 상:** UNGC 회원사 실무진
- **신청기간:** 2024년 8월 12일 - 9월 6일
- **미팅일정:** [1차] 9월 11일 (수) 14:00 - 17:00
- **장 소:** 바비엡2교육센터 컨퍼런스룸(서울 중구 통일로 114 바비엡2 3층)



| 실무그룹 운영 방향

- 기업 내 유관부서 담당자가 참여하며, 기업 당 1-2인이 참여 가능합니다.
- 현황 공유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입니다.
- 회차별 세부 주제는 최신 동향 및 실무그룹 구성원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마련되며, 각 미팅 개최 안내 시 공지됩니다.

| 실무그룹 등록 방법

- 아래 QR코드 또는 '신청 바로가기' 링크를 통한 참여 등록



※ 사내 보안정책 등으로 링크 접속이 어려운 경우 QR코드를 통해 신청해주시거나,
기관명/부서/성함/직함/이메일/연락처를 기재하여 gckorea@globalcompact.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1차 미팅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4:00 - 14:05 (05')	행사 소개 및 참석자 안내
14:05 - 14:55 (50')	[발표 1] 국내 기업 사회공헌 이슈 & 임팩트
14:55 - 15:10 (15')	휴식
15:10 - 15:45 (35')	기업 사회공헌 우수사례 공유
15:45 - 16:55 (70')	참여기관 활동 공유 및 네트워킹
16:55 - 17:00 (05')	마무리 및 협회 활동 안내

※ 프로그램 내용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실무그룹은 UNGC 회원사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 실무그룹 아젠다 간 중복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의: UNGC 한국협회 이다현 연구원

Tel. 070-4327-5051 E-Mail. dayn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5. 2024 하반기 ESG 팀장 네트워크 안내(9/27)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국내외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ESG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대내외 소통을 주도해 나가는 ESG 담당 팀장의 역량 강화 및 동료 학습을 위해 '2024 ESG 팀장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24 상반기 ESG 팀장 DAY'에서는 ESG 경영 추진의 핵심주체로서 ESG 팀장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하반기 ESG 팀장 DAY'에서는 국내외 ESG 평가 동향을 알아보고, ESG 전략 수립과 추진 사례를 공유하여 함께 학습하고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회원사 ESG 담당 팀장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2024 팀장 네트워크 2차
- 일 시: 2024년 9월 27일(금) 14:30 - 17:25
- 장 소: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 미드센추리룸(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나길 38, 4층)
- 대 상: 회원사 ESG 담당 팀장

| 등록 방법

- 아래 QR코드 또는 '참석 신청하기' 링크를 통한 참석자 정보 제출



참석 신청하기



※ 사내 보안정책등으로 링크 접속이 어려운 경우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신청해주시거나,
기관명/부서/성함/직함/이메일/연락처를 기재하여 gckorea@globalcompact.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4:30 - 14:37 (07')	행사 소개 및 참석자 안내
14:37 - 14:40 (03')	인사말
14:40 - 14:45 (05')	영상 상영
14:45 - 15:35 (50')	[세션 1] 팀장 역량 강화 1 - ESG 최신 동향 < 국내외 ESG 평가 동향 및 팀장의 역할(가제) >
15:35 - 15:50 (15')	휴식
15:50 - 17:10 (80')	[세션 2] 팀장 역량 강화 2 - 기업 및 팀장 사례 공유 < ESG 전략 수립 및 추진 사례 >
17:10 - 17:25 (15')	공연
17:25 ~	만찬 및 네트워킹 ※ 사전에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하여 저녁 식사가 제공됩니다.

※ 프로그램 내용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Tel. 02-749-2149/21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6. TGE Round 5 런칭 기념 조찬 간담회 개최 결과(7/25)

□ 일시: 2024 년 7 월 25 일(목), 07:30-09:00

□ 장소: 롯데호텔 서울 샤롯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기업 내 다양성과 여성 대표성 향상을 위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타깃젠더이퀄리티(Target Gender Equality, 이하 TGE) 프로그램의 다섯 번째 라운드 런칭을 기념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 TGE Round 5 참여기업(12): △넥센타이어 △두산 △두산퓨얼셀 △MYSC △세아상역 △애큐온캐피탈 △LX 세미콘 △포스코 △포스코이앤씨 △한국콜마 △현대제철 △효성첨단소재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이날 자리한 환영사에서 “한국은 기업 이사회내 여성비율 8.8%, 의장 비율 2.3%, 여성 CEO 및 CFO 의 비율이 각각 2.9%로 성평등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국가”라고 강조하며, “2 주 전 ‘2024 OECD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을 위해 방한한 OECD 국가분석실장 또한 한국은 저출생, 성별임금격차 두 부문에서 ‘월드챔피언’이라며 안타까운 현실을 언급한 바, ROUND 5 참여 실무진들의 적극적인 TGE 프로그램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성평등은 단순히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조건, 그리고 소수 성별에 대한 시의적인 배려가 아니라, 시장에 내재한 비효율을 제거함과 동시에 기업의 성과를 합리적으로 만들어 가는 경영전략의 일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조연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과장이 『여성역량강화원칙(WEPs)과 TGE Round 5 프로그램』을 소개하였습니다. 먼저 UNGC는 성평등을 SDGs의 이행을 위한 주요 출발점 중 하나로 바라보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 참여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리더십, 직장, 시장, 지역사회 내 기업의 성평등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된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에 전세계적으로 9800 여개 기업이 가입한 가운데, 한국은 아직 72 개 회원사만이 가입해 있는 만큼 성평등을 위해 기업의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WEPs 성 격차 분석 톨 결과 분석 △정부, 투자자, 학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 △미디어&옹호 활동 등 TGE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설명하며, 기업들의 Round 5 참여를 환영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이 TGE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게 보내는 TGE 프로그램 참여 증서 전달 세레모니를 가졌습니다. 참여진을 대표하여 포스코 최영 실장이 대표로 참여증서를 받고, TGE Round 5 전체 참여진을 위한 사진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미 동서대학교 교수이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인구 대전환기, 기업 성평등 추진의 중요성과 역할』 특별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김영미 교수는 심각한 인구위기로 민간 부문 또한 노동력 부족 및 성장잠재력 둔화 등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출산장려금 등 단편적인 '연속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별 다양성이 글로벌 기업

경쟁력의 주요 의제로 부상한 가운데, 기업 ESG 경영 촉진을 위해서는 △공정한 보상 시스템 마련을 통한 성별 임금격차 해소, △제도적 개선 외 조직문화 변화의 수반, △성차별적 관행 폐지 및 포용적인 조직문화를 위한 교육 및 내부 토론 강화, △여성만이 아닌 '전체 구성원'을 위한 가족친화적 및 일생활균형지원 제도 운영, △협력업체의 성평등 확산 등 기업내 제도적·환경적 조치를 강구하여 포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간담회 마지막 순서로, 이은경 UNGC 한국협회 실장이 TGE 얼름나이 삼성전자 남진희 DEI 사무국장, LG 디스플레이 노우진 책임, HK 이노엔 김유숙 팀장 3인 초청 하에 토크쇼를 진행하였습니다.

TGE 얼름나이 참석자들은 TGE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기업의 DEI 사례를 접하고 적용해볼 수 있었고, WEPIs 성 격차 분석 툴을 통해 자사 성평등 현황진단과 더불어 개선사항을 파악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업 성평등을 향한 첫 발걸음이 중요하고, 여성임원 비율 및 리더십 증대 등 학습한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전하면서, TGE 참여를 통해 경영진 설득 및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이은경 실장은 TGE 얼름나이들의 개인적, 조직적 변화와 사례 공유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하며, 향후 이어질 TGE Round 5 참여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토크쇼를 마무리하였습니다.

TGE Round 5 는 8 월 27 일 1 차 워크숍을 시작으로, 약 4 개월 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사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조연경 과장 (T. 070-4327-9767 /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7.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AA) 2 차 워크샵 결과(7/16)

□ 일시: 2024 년 7 월 16 일(화), 14:00-16:30

□ 장소: 바비엡 2 교육센터 3 층 Conference Room

□ 주요내용: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7 월 16 일(화) 기후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limate Ambition Accelerator, 이하 CAA) 참여사 대상 <2 차 GHG 실습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21 개 기업에서 약 27 명의 실무진이 참석한 본 워크샵에서는 GHG 프로토콜 온디맨드 콘텐츠 리뷰, 사전 과제에 대한 그룹별 토의 및 기업 현황 공유, 과제 답안 도출 및 기업 사례 소개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참석기업(21): 네이버 주식회사, 넥센타이어, (주)두산, 두산퓨얼셀, DRB 동일, DL 이앤씨, DL 케미칼, 마스턴투자운용, 세아상역, i-ESG, 애큐온캐피탈, SK하이닉스, LS일렉트릭, LX세미콘, 코스글로벌, 코스맥스, 포스코, 한국콜마(주), 한국평가데이터, 현대제철 주식회사, 힐라홀딩스



I. GHG 프로토콜 리뷰: 장한별 UNGC 한국협회 과장



UNGC 한국협회 장한별 과장은 CAA 참가자들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온디맨드 세션을 통해 학습하고 있는 GHG 프로토콜 개념과 방법론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먼저 GHG 프로토콜 설립 배경에 대해 설명한 이후,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절차인 △조직경계 설정, △운영경계 설정, △Scope 1, 2, 3 배출량 산정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Scope 2 배출에서는 지역기반법과 시장기반법의 산정 공식을 설명하며, 시장기반법의 경우 재생에너지인증서(REC) 등을 이용해 소비한 전력 배출량을 제외한 나머지 소비량은 잔여 배출계수(Residual mix)를 활용해서 산정해야 하지만, 국내에서는 Residual mix 금액을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Scope 3 산정법에서는 전과정평가(LCA)와 생산에서 출고(Cradle-to-gate)의 개념을 소개하고,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자재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파악하는 것이 Scope 3의 산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cope 3 배출계수 데이터 수집 방법인 △공급업체별(Supplier-specific), △산업평균값 데이터(Average/industry-data), △지출 기반(Spend-based), △복합계수(Hybrid) 방법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발표를 마쳤습니다.

II. 그룹별 과제 논의 및 현황 공유: 이선미 UNGC 한국협회 팀장



이어 이선미 UNGC 한국협회 팀장의 진행으로 과제 풀이에 앞서 그룹별로 나뉘어 사전 과제의 답안을 도출하면서 겪었던 애로사항과 현업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과제 풀이 과정에서 △누락된 데이터의 추정방법, △REC를 구매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Residual mix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와 자본재의 카테고리 구분법, △단위별로 환산하는 과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공유했습니다. 현업에서는 △Scope 3 관리 데이터 수집 과정, △시장기반법을 통한 전력 배출량 감소 방안, △출장 거리 데이터 수집 방법, △배출계수 데이터 수집 방법 등에 대한 어려움들을 공유했습니다.

III. 과제 답안 도출 및 기업 사례 소개: 전진희 ERM 코리아 컨설턴트



전진희 ERM 코리아 컨설턴트는 과제의 전반적인 솔루션을 설명한 이후, 그룹토의에서 공유되었던 질문들에 답변하고 기업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Scope 1 연료 산정부분에서 누락된 데이터를 추정하는 방법은 명확한 정답이 없으며, GHG 프로토콜은 보수적으로 산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과제에 대해서는 연료가 로스팅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난방에 사용되기 때문에 개별적 편차가 있어 전년도 데이터를 이용해 추정하는 방법과 여름과 겨울을 나누어 평균값을 추정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Scope 2 전력 산정부분에서 시장기반법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 기업이 REC 를 구매하지 않았어도 다른 기업들이 구매한 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Residual mix 를 통해 잔여 전력 소비량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Residual mix 배출계수는 지역평균배출계수 보다 높으며, 기업의 PPA 나 REC 구매량이 낮을 경우 시장기반법의 총 배출량이 지역기반법 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외 전력 배출계수를 가장 쉽게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별로 나와있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며,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환경보호청(EPA)에서 주별로 제공하고 있는 배출계수 데이터를 참고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Scope 3 산정부분에서 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와 자본재의 카테고리를 정하는 방법도 명확한 정답은 없으며, 현업에서 기업이 증빙 자료를 제출할 때 각 카테고리별로 구분한 근거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활동 데이터가 어떤 단위로 되어 있는지 어떤 성격인지는 기업이 판단하고 구분해서 보고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유화학 업종의 Scope 3 배출계수 이용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기업 사례에 소개된 대부분의 기업들이 배출계수를 수집할 때 평균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평균방법론으로 산정한 기업은 대체로 에코인벤트(Ecoinvent), GaBi, 영국 환경식품농촌부(UK DEFRA) 및 환경성적표지의 데이터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CAA 프로그램은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워크샵이 결합된 5개월간의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총 7 개의 워크샵을 진행중에 있으며, 다음 3 차 워크샵은 8 월 29 일 오전 10 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CAA 참가자분들은 3 차 워크샵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장한별 과장 (T. 070-4327-9768 /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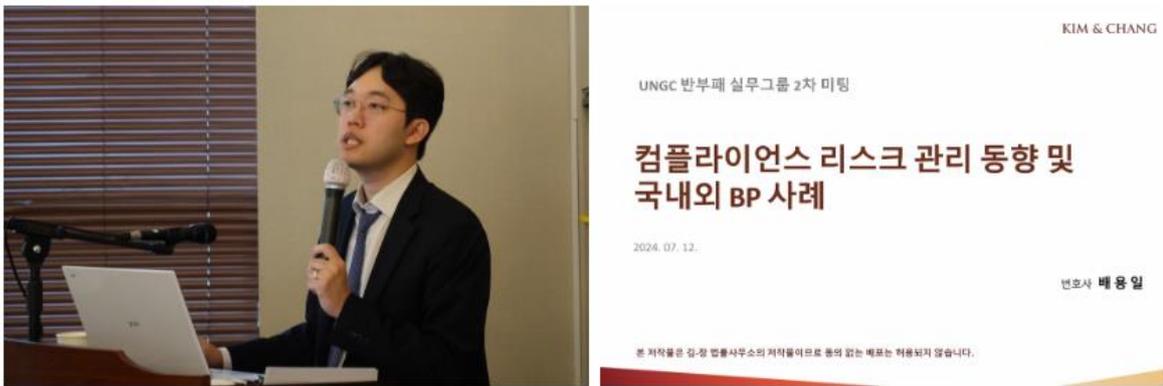
8. 2024 반부패 실무그룹 2 차 미팅 결과(7/12)

□ 일시: 2024 년 7 월 12 일(금), 14:00-17:00

□ 장소: ENA 스위트 호텔 3 층 R.ENA 컨벤션

유엔글로벌콤팩트(UNG) 한국협회는 7 월 12 일(금), 총 21 개 기업 및 기관에서 31 명의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실무그룹 2 차 미팅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미팅에서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동향 및 국내외 BP 사례'와 'ISO 37001, ISO 37301 인증 준비를 위한 주요 요구사항 해석 및 사례 연구'를 주제로 전문가 강의를 들어보고, 참여 기업/기관간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I.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동향 및 국내외 BP 사례 - 배용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먼저 김앤장 법률사무소 배용일 변호사는 준법경영의 의미와, 법률 및 규제 강화에 따른 준법경영 강화 현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경영진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사례를 분석하여 경영진에 대한 준법감시 의무 기준이 대폭 강화됨을 언급하고, 준법경영이 기업의 경쟁력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최근 국내 대기업 및 산업계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강화 기초를 설명하며, 실효성 있는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한 고려 요소로 △ 높은 법적 리스크가 예상되는 업무영역의 식별, △ 구체적-실질적 가이드라인 마련, △ 위법행위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고시스템 구축, △ 독립적 조사절차 및 적절한 징계절차 마련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선도기업의 우수 사례로 이사회 기록 절차 체계화 사례와 대내외 자율 준법 체크리스트 활용 및 자가점검 체계 구축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끝으로, 컴플라이언스 수준 계량화 및 수치화, AI 및 IT 시스템 도입에 대해 설명하며, 컴플라이언스 관리의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설명하였습니다.

II. ISO 37001, ISO 37301 인증 준비를 위한 주요 요구사항 해석, 사례 연구 - 이정우 BSI Korea 심사원



이정우 BSI Korea 심사원은 ISO 37001, ISO 37301 인증 준비를 위한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ISO 표준 지침인 HLS(High Level Structure) 내에서 ISO 37001 과 ISO 37301 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ISO 방법론을 사용한 기업들의 리스크 평가 사례를 소개하며, 효율적인 반부패 리스크 관리 업무 분담을 통한 통제수단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SO 인증 요구사항들에 조직의 규모와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을 잘 반영 해야함을 설명하고, 특히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사안으로 △ 사업 영위 지역, △ 합병, 매각 등 조직 지배구조를 제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사례별 시나리오에 기반한 부패 리스크 평가표를 구축하고, 해당 결과에 따라 실사 프레임워크를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니지먼트 시스템 통합 구조에 대해 설명하며, 실행부서별 컴플라이언스 통제 인원을 구축하여 통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강조했습니다.

III. 참여 기업/기관 현안 공유



이어진 참여 기업/기관 현안 공유 시간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의 진행으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그룹별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술보증기금 김혜진 대리는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윤리경영 표준모델, 윤리위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보증기금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사적으로 준법 정신을 내재화하기 위해 상시 접근 가능한 컴플라이언스 콘텐츠를 제공하고, 정기 교육 및 현장 교육을 실시하여 부패 취약 분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콜마 유가영 사원은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와 사전 업무협의체로 구성된 한국콜마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체계를 설명하고, 자율준수 관리자를 선정하여 준법 경영 프로세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부터 CP 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내부적으로 컴플라이언스 레터를 발행하며 준법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에 소그룹 논의를 통해 △해외 법인의 현지 법률 컴플라이언스 현황, △공급망 내부 통제 강화, △ISO 37301 인증 도입 현황과 추진 배경에 대한 각 사의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 기반 컴플라이언스 관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안정화 방안, △ESG 공시 이슈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조직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며 산업계 동향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향후 하반기 진행될 반부패 실무그룹 3 차 미팅에도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안일곤 과장 (T. 070-4327-5057 /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9. 2024 지속가능금융 실무그룹 2 차 미팅 결과(7/11)

□ 일시: 2024 년 7 월 11 일(목), 14:00-17:00

□ 장소: ENA 스위트 호텔 3 층 R.ENA 컨벤션

□ 주요 내용: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7 월 11 일(목), 총 31 개 기업 및 기관에서 44 명의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금융 실무그룹 2 차 미팅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미팅에서는 지속가능금융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인 ESG 채권의 국내외 동향 및 활성화를 주제로 전문가 강의와 기업 사례를 살펴보고, 참여 기업/기관 간 지속가능금융의 자금 운용 및 조달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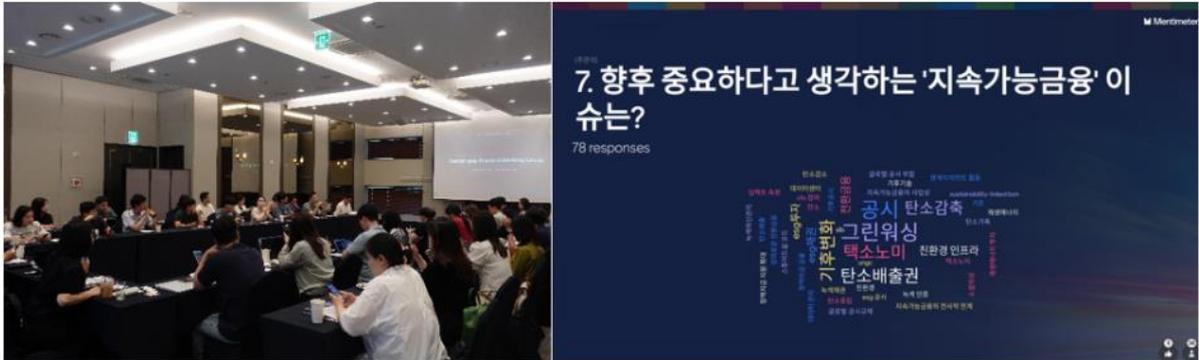


I. 인사말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유연철 사무총장은 2030 년 SDGs 달성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지속가능금융 확대를 위한 민간 부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내 지속가능금융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실무그룹을 신설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실무그룹을 시작으로 국내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ESG 재무적 가치를 제고하고, 기업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도모함으로써 SDGs 라는 범지구적 공동의 목표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II. 지속가능금융 서베이



먼저, 참석한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 서베이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지속가능금융 이슈'는 녹색분류체계 또는 사회적 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발굴, ESG 공시 연계성,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ESG 및 지속가능연계채권, 기후금융 투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ESG 자금 운용/조달에서 최우선으로 중점을 두는 업무'는 ESG 프로젝트 발굴, ESG 리스크 관리, 주주, 투자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 소통, 정량적 KPI 수립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석자들은 '향후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속가능금융 이슈'에는 ▲탄소노미, ▲그린워싱, ▲공시대응 등으로 응답했고,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는 ▲정책적 지원, ▲경영진 인식 제고를 언급했습니다.

III. 국내외 ESG 채권 시장 동향 및 현황



KB 증권 ESG 리서치팀 김준섭 수석연구위원은 글로벌 ESG 채권 시장 동향을 소개하며, ESG 채권 시장이 녹색 채권을 중심으로 2014년 대비 40배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장 동력으로 ▲ESG 채권 발행 주체의 다양화, ▲기관 투자자의 ESG 채권 투자 비중 증가, ▲SFDR 등 글로벌 규제 강화를 언급하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비해 국내 채권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나 국내 투자자들도 ESG 요소와 재무적 성과의 연계성을 이해하기 시작하여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특히 지속가능연계채권(SLB)의 이점으로 ▲적격 프로젝트 조건 없이 발행 가능, ▲지속가능성과목표(SPT)로 자금사용 영향도 측정, ▲스텝업 조항으로 인한 그린워싱 리스크 감소 등을 꼽았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미국 국채 금리보다 낮은 금리(6.375%)로 SLB 를 발행한 사례를 소개하며, SLB 발행 시에 기업은 SDGs 에 기반하여 SPT 를 수립하고 이를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IV. 기업 사례: ESG 채권 발행 절차 및 ESG 경영 현황



NH 투자증권 IB 사업부 Technology Industry 부 김승준 팀장은 ESG 채권 발행과 일반적인 채권 발행 절차의 차이를 비교하고, 전반적인 ESG 채권 발행 구조 및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SG 채권은 지정된 목적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는 특수목적증권인 만큼 관리체계를 설정하여 공시하고,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관리체계는 ▲자금의 용도,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외부검토, ▲사후보고 내용을 포함하여 설정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으로 분류되는 ESG 채권의 예시들도 소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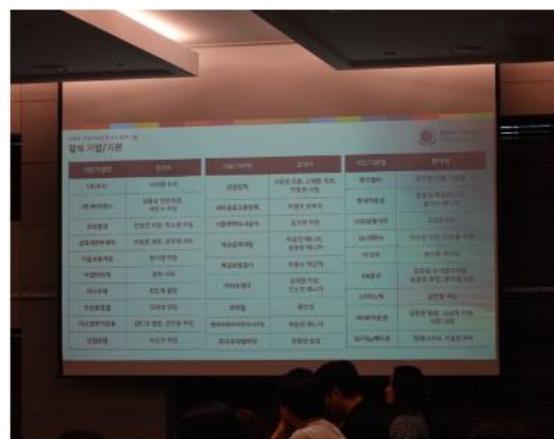
두번째 사례로 iMBank 정진욱 ESG 팀장이 ESG 경영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iMBank 는 22 년도에 ESG 고도화 프로젝트로 ESG 9 개 전략과 27 개 과제를 도출하여 부서간 협력업무체계를 만들어 지속가능경영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ESG 통합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과정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금융배출량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 ▲기업 대상 ESG 금융상품 라벨링,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과의 녹색금융 협약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끝으로, ESG 팀의 비재무적 성과 평가를 위한 정량적 KPI 를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경영진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V.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업 투자 및 금융에 대한 CFO 행동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안성은 과장은 'SDGs 를 위한 CFO 연합(이하 CFO 연합)'에서 발간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업 투자 및 금융에 대한 CFO 행동' 국문 번역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 SDG 연계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투자와 금융의 역할을 설명하며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CFO 연합'의 'SDG 원칙 프레임워크'를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SDGs 달성을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은 ▲개발도상국 및 신흥시장에 외국인직접투자(FDI), ▲양허성 및 비양허성의 혼합금융투자를 통한 금융중개,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금융포용성 확대, ▲정의로운 전환 등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전하였습니다.

VI. 참여 기업/기관 현안 공유



이어진 참여 기업/기관 현안 공유 시간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의 진행으로 참여사별로 ESG 채권 발행 현황과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슈와 도전과제들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참여 기업은 ESG 채권 발행/매입의 종류, 시기, 규모 등 현황을 공유하며, 국내 ESG 채권 시장의 성장을 위한 금리 인하, 장기적 투자 등의 혜택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그 밖에는 ▲EU 및 국내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평가 대응, ▲자금 조달 또는 투자 수익 기반 다변화, ▲투자자와 피투자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ESG 를 통한 재무적 성과 연계, ▲공정 공시 대응 방안, ▲기업 내 녹색여신 관리 체계 수립의 필요성 등에 대한 현안을 나누며 네트워킹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 진행될 지속가능금융 실무그룹 3 차 미팅에도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안성은 과장 (T. 070-4327-9771/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10. [CoREi 세미나] '재생에너지 24/7(실시간 매칭) 조달 개념과 현황' 결과(7/10)

□ 일시: 2024년 7월 10일(수), 10:00-13:00

□ 장소: 서울 중구 을지로 16 프레지던트호텔 19층 브람스홀

□ 주요 내용: 기업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 CoREi)는 2024년 7월 10일(수)에 기업 실무진들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24/7(실시간 매칭) 조달 개념과 현황'을 주제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행사에는 CoREi 회원사를 포함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내 60여개의 기업 및 기관에서 70여명의 실무진들이 참석하여 재생에너지 현안인 실시간 매칭 조달의 개념과 녹색프리미엄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해 알아보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I. 24/7(실시간 매칭) 조달 개념과 현황



먼저, 전북대학교 진태영 교수의 국내 RE100 현황과 실시간 재생에너지 조달의 쟁점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진 교수는 RE100의 국내외 기업 참여현황과 한국형 RE100(K-RE100)의 주요 이행 수단에 대해 소개하며, 지속적으로 RE100 가입 기업이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 공급불균형이 가속화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진 교수는 국내 RE100 제도의 주요 현안으로 ▲녹색프리미엄제에 편중된 재생에너지

조달 수단 현황(90%이상) 개선, ▲재생에너지 추가성 및 자원 활용의 투명성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원에 대한 추적성 제고 등을 강조하며, 일례로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발전원별 입찰이 추적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24년 5월에 출간된 RE100 보고 가이드라인(Reporting Guidance)에 추가된 ‘시간 세분성(time granularity)’ 개념과 관련하여, 재생에너지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가 발행하는 시간을 고려해 시간대별로 전력을 조달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시간대별 실시간 전력 조달 사례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기업을 소개하였습니다. 끝으로, 실시간 전력수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의 필요성과 데이터 기반 가상발전소(VPP), T-EAC 개발 등 제도적 차원에서의 재생에너지 거래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II. RE100 과 녹색프리미엄



이어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수석연구원은 재생에너지 추가성과 녹색프리미엄제도에 대한 RE100의 기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 수석연구원은 재생에너지 추가성에 대해 GHG 프로토콜과 RE100은 모두 추가성을 의무기준으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GHG 프로토콜의 경우, 추가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해야 하며, RE100은 기업의 추가성 향상 노력을 모니터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내 재생에너지 조달 제도별 추가성 수준은 모든 이행수단(녹색프리미엄제, 인증서(REC) 구매, 제 3자 PPA, PPA)이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RPS) 활용여부와 배출권거래제에서의 배출량 산정(무배출) 반영 여부에서 상반된 추가성을 보이므로, 어떤 이행수단이 가장 추가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녹색프리미엄제도의 RE100 인정배경에 대해 김 수석연구원은 RE100의 기술기준은 GHG 프로토콜의 Scope 2 시장기반 산정법에 기반을 두었다고 전하며, GHG 프로토콜의 Scope 개념은 온실가스 배출의 직접, 간접 책임성을 추적하기 위해 Scope 1,2,3 배출량의 중복 산정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며 개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녹색프리미엄제도의 경우, GHG 프로토콜에 기반한 Scope 1과 2의 설계 구조상 중복 산정이 되기 때문에, RE100에서는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으로 인정하지만 RPS에 따라 생성되었으므로

재생에너지 추가 생산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Scope 2 배출량이 반영된 국내 배출권거래제 특성상, RPS 이행의무량에 기반한 녹색프리미엄의 Scope 2 무배출 인정 시 중복 인정이 되어 국가감축목표(NDC) 이행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기업이 국내 배출권거래제 지침을 사용하여 녹색프리미엄을 통한 Scope2 배출량 감축을 보고한다면 왜곡된 감축 보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II. 종합토론



마지막 순서로, 발제자 두 분과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신사업처 김진희 부장,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 RE100 운영팀 이정석 팀장과 함께 실시간 매칭의 국내 도입 가능성과 녹색프리미엄제도에 관한 향후 계획 및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진희 부장은 실시간 매칭에 대해 한국전력에서 설계가 완료된 유사한 기술방법론인 ‘에너지 생산제’를 소개하며, 실시간 매칭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러한 기술을 뒷받침할 제도적인 지원과 에너지 공급 측면의 에너지원 포트폴리오 다양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녹색프리미엄제도의 추가성에 관해 이정석 팀장은 한국은 녹색프리미엄제도로 모금된 자원의 일부를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하는 등 타국 대비 우수한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국내 기업들의 RE100 이행이 보다 용이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재생에너지 실시간 매칭 조달의 개념 및 현황과 국내외 사례를 조망하고, RE100의 녹색프리미엄제도 인정기준과 재생에너지 추가성 개념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재생에너지 현안에 대한 개념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최하은 연구원 (T. 02-6954-2148 /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11. 2024 인권 실무그룹 2 차 미팅 결과(7/4)

□ 일시: 2024 년 7 월 4 일(목), 14:00-17:00

□ 장소: ENA 스위트 호텔 3 층 R.ENA 컨벤션

□ 주요 내용: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7 월 4 일(목), 총 28 개 기업 및 기관에서 43 명의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 실무그룹 2 차 미팅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미팅에서는 ‘공급망 인권경영 내재화와 체계 구축’을 주제로 전문가 강의와 기업과 인권 지침서 주요 개정 내용 등을 살펴보고, 참여 기업/기관간 공급망 인권경영 관련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I. 공급망 인권경영 내재화와 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적 쟁점 -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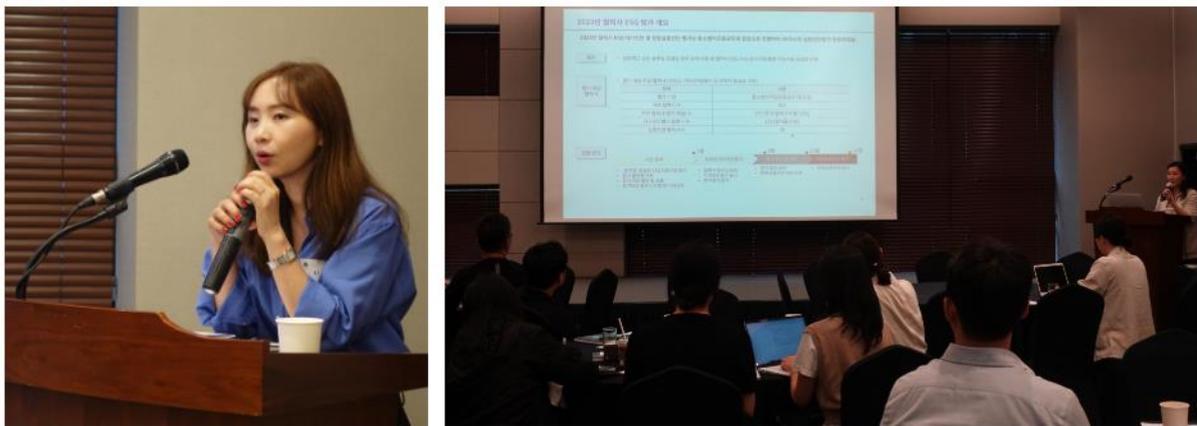
법무법인 화우 이근우 변호사는 기업과 인권 벤치마크(CHRB · 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 핵심 UNGP 지표 및 국내 평가 결과와 국내외 기업과 인권 분쟁 사례를 소개하며, 공급망 인권 실사 의무화에 대비하여 산업계와 정부가 인식을 전환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핵심 지표 중 인권 존중 내재화와 인권 실사 항목의 경우, 거버넌스 및 정책 약속이나 구제 및 고충처리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하며, 많은 기업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포괄하는 관리 시스템 부재, △신규 사업 운영 시 인권 리스크 식별 과정의 누락,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공급망 내 조치 미흡,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 부족 등의 문제가 존재하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기업의 기업과 인권 관련 공급망 분쟁 사례와 현황을 소개하며, 우리 기업들을 위한 시사점을 설명하였습니다.

II. 기업과 인권 지침서 주요 개정 내용 소개 - 안일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과장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안일곤 과장은 2024년 6월 개정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의 기업과 인권 지침서를 소개하며, 주요 개정 내용과 이슈별 체크리스트의 활용 방안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판의 가장 큰 특징은 구성별 분권화(①국내외 동향 및 주요 가이드라인, ②인권 실사 가이드라인, ③인권 실사 이슈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업 인권경영 담당자가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으며 국내외 기업 인권 최신 동향과 인권 실사 요소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지침서에 수록한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사례 중 △산토리 홀딩스(Suntory Holdings)의 공급업체 인권경영 내재화 노력, △프리포트 맥모란(Freeport McMoRan)의 신규사업에 대한 잠재적 인권 리스크 식별 활동, △도요타통상(Toyota Tsusho Corporation)의 ISO 30414를 기반으로 한 인적자본 공시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신력 있는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중요한 지표를 선별하여 14개 인권 이슈별 체크리스트 소개하고, 자사의 비즈니스 특성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III. 참여 기업/기관 현안 공유



이어진 참여 기업/기관 현안 공유 시간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의 진행으로 협력사의 인권경영 내재화와 체계 구축을 위한 참여사별 현황을 공유하고 그룹별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주)두산 임소윤 수석은 두산의 경우,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전반적인 공급망 평가를 진행 중이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자체 툴을 활용하여 온라인 자가진단 및 현장 심층진단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협력사별 도출된 개선과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필요사항에 대한 협력사의 니즈를 파악하여 개선 방향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 중이고, 향후에는 ESG 관련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투어 김이랑 수석은 하나투어의 경우, 윤리, 노동 및 인권, 안전, 보건 등에 대한 협력사 행동규범을 수립하고, 신규 등록 및 중간 평가 시 임금체불 여부, 윤리경영 등 인권 관련 사항을 심사 중이라고 밝히며, 심사 결과에 따라 협력 여부를 결정한다고 소개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박희숙 차장은 6 개 계열사와 2,240 개 협력사 등을 보유한 한국철도공사의 주요 인권 이슈를 소개하며, 공사 최초로 협력사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행동규범으로 제정하여 이행서약서를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에 계열사 및 협력사를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여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고 해소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소그룹 논의를 통해 △평가 대상 협력사의 선정 기준, △협력사의 인권경영 참여 증진 방안, △유관 부서와 협력사의 원활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방법, △ 인권영향평가의 진행 과정 및 체크리스트 작성 방법, △기업과 이해관계자 간 고충처리 방법 및 이해관계자 참여, △업종별 인권경영 고도화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각 사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동료 학습 및 벤치마킹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기업 내 다양성과 여성 대표성 향상을 위한 Target Gender Equality(TGE)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등 한국협회에서 진행 중인 활동을 소개하며 인권 실무그룹 2 차 미팅을 마쳤습니다. 향후 하반기 진행될 인권 실무그룹 3 차 미팅에도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안일곤 과장 (T. 070-4327-5057 / gckorea@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본부소식

1. UNGC, 아시아 & 오세아니아 지역의 지속가능경영 촉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8월 5일~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아시아 경영대학원(Asia School of Business)에서 개최된 '포워드 패스터 나우 (Forward Faster Now) | 아시아 & 오세아니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본 행사에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진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약 500명 참여했습니다.

2024 지속가능개발목표 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24)에 따르면, SDG 달성의 목표 기한이 6년밖에 남지 않은 현재의 진전 상황은 필요한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가 더욱 회복탄력성을 갖추고 번영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제시하고, 현재의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로드맵인 SDGs의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와 이행 수준의 신장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SDG 목표의 17%만이 정상 궤도에 있으며, 절반 정도는 미미하거나 중간 단계의 진전을 보이고 있고, 3분의 1 이상은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은 세계 예산 성장률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합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동 지역의 방대한 공급망 네트워크는 전 세계의 생산 및 무역, 투자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 발전된 디지털 기술, 비즈니스 혁신 등을 보유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는 글로벌 무대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산다 오잠보 UNGC 사무총장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기업들의 헌신과 혁신의 정신은 SDGs 달성에 필수적입니다. 기업은 모두를 위해 자원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보다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기업들은 환경·사회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가능한 솔루션을 혁신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역량과 더불어 이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관행을 기업 경영에 접목하여 기업은 SDGs 를 달성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포용적 번영을 장려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에서 리더들은 지속가능개발에 있어 민간 부문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부터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선보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미치는 변혁의 영향력을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270 개 이상의 UNGC 회원사가 '포워드 패스터 (Forward Faster)' 이니셔티브에 동참했습니다. 본 이니셔티브는 2030년까지 17 개 SDG 의 진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5 대 실천 영역(△성평등, △기후행동, △생활임금, △금융 및 투자, △수자원 회복탄력성)에서 측정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야심찬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합니다.

산다 오잠보 UNGC 사무총장은 "기업은 측정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고 글로벌 시장의 최선두에 설 수 있으며, 미래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리더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UNGC 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의 임팩트 사례를 소개하는 신규 보고서를 발표하여 기업들이 UNGC 프레임워크 하에 달성한 가시적인 성과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중국, 일본, 네팔,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의 기업으로부터 수집한 각 사례는 UNGC 회원사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독보적인 노력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본 보고서를 통한 사례 공유는 지속가능성을 기업의 핵심 운영방식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다른 기업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Forward Faster Now Asia' 행사는 'Forward Faster Now' 지역행사 중 첫 번째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민간 부문이 현지에서 펼치고 있는 활동을 소개하고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많은 기회와 도전과제를 강조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Forward Faster Now Asia'에서 논의된 내용은 9 월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High-Level week)에 UNGC 가 주최하는 행사에도 반영될 예정이며, 대표 행사인 2024 리더스 서밋(Leaders Summit 2024)에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자세히 보기](#)

2. UNGC, 글로벌 아프리카 비즈니스 이니셔티브(GABI) 활성화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아프리카 연합 위원회는 ‘글로벌 아프리카 비즈니스 이니셔티브(GABI)’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UNGC의 아프리카 전략은 아프리카 대륙에서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책임감 있고 야심찬 아프리카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전략을 바탕으로, UNGC와 아프리카 연합 위원회는 이번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 전역에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파트너십은 아프리카 연합 위원회의 경제개발, 관광, 무역, 산업, 광업 부문 위원인 알버트 무창가 대사(H.E. Ambassador Albert Muchanga)와 UNGC 사무총장인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의 참석 하에 의향서를 교환하며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7월 20일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연합 주관 ‘제 6차 중기 조정 회의(Mid-Year Coordination Meeting; MYCM)’ 계기 GABI가 주최한 부대행사에서 파티마 카리 모하메드(Fatima Kyari Mohammed) 유엔 주재 아프리카 연합 상임 옵서버와 찰스 아바니(Charles Abani) 유엔 주재 가나 상주 협력관이 기념촬영(상기 사진)을 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의 「의제 2063」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30’을 이행하기 위해 아프리카 연합과 유엔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수립된 본 파트너십은, 특히 아프리카 개발 종합 로드맵인 「의제 2063」의 제 2차 10개년 이행 계획(Second Ten-Year Implementation Plan 2023~2032)을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UNGC는 아프리카 대륙 전역의 기업들과 협력하여 아프리카 연합 위원회의 목표와 임무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프리카 연합 위원회의 무창가 위원은 새로운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협력은 아프리카 연합의 「의제 2063」 목표 실현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UNGC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아프리카 전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포용적이며 역동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UNGC 사무총장 산다 오잠보는 “오늘 이 자리에서의 서한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 GABI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아프리카 연합 위원회와 유엔 기구는 오랜 기간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기업들이 시장내 위험을 해소하고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더욱 윤택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 대륙이 더욱 혁신적 성장을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미나 J. 모하메드 유엔 사무차장이 주도하는 GABI는 글로벌 무대에서 아프리카 대륙이 비즈니스의 종착점이자 투자 기회의 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연합의 「의제 2063」 및 SDGs의 달성을 지원합니다.

오는 9월 25~26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총회의 부대행사로, GABI는 ‘멈추지 않는 아프리카 (Unstoppable Africa)’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분께서는 사전에 참석 신청해 주세요. GABI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웹사이트 (gabi.unglobalcompact.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3. 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 안내(9/24)



전 세계 정부 지도자, 비즈니스 리더, 국제기구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2030 아젠다 달성 관련 민간 부문의 기여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와 지식 및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본 행사를 개최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지난 25년 동안 지속가능한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무대에서 노력해 왔습니다.

2024년 9월 24일 뉴욕에서 개최되는 연례 서밋인 '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해의 리더스 서밋은 변화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더 나은 현재를 제공하고 미래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2024 미래를 향한 서밋(Summit of the Future)과 함께 2024 유엔총회 기간 동안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 행사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의 역량을 제고하고, 복합적인 글로벌 위기를 기업이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혁신, AI 및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기업이 다양한 리스크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서밋이 될 것입니다.

* 행사 세부 정보, Q&A 등 상세 내용은 행사 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하단 링크)

* UNGC 회원사의 경우 참여비가 할인되며, 행사 제반 비용은 참가자 부담 필요

| 세션 개요

- 일시: 2024년 9월 24일

* 9월 25일은 Forward Faster Acceleration Day 개최

- 장소: 미국 뉴욕 (The Nest Climate Campus, Javitz Center North)

| 주요 연사



SANDA OJIAMBO
Assistant Secretary-
General and CEO
UN Global Compact



AMY WEBB
Founder and CEO
Future Today Institute



AKAYA WINDWOOD
Lead Advisor
Third Act



**LUÍSA FRANCO
MACHADO**
Young Leader for the
SDGs



문의 : UNGC 한국협회 조연경 과장

Tel. 070-4327-9767

E-Mail. ykcho@globalcompact.kr

[자세히 보기](#)

UNGC 회원사 ESG 우수 사례

BNK 금융그룹

■ E(Environmental) ■ S(Social) □ G(Governance)

1. 기업 소개

BNK 금융그룹은 399 개의 국내 점포와 해외 77 개 거점 네트워크 (2023 년 12 월 31 일 기준)를 기반으로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 년 지역 유망 스타트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 수행 및 그룹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BNK 벤처투자를 편입하면서 9 대 자회사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BNK 금융그룹은 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금융투자업, 저축은행업, 창업투자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시스템 공급 및 개발업 등 금융업 전반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국내 최고 지역금융그룹이자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였습니다. 앞으로 은행부문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은행 부문 수익성 및 이익 창출력을 확대하여 그룹의 펀더멘털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BNK 금융그룹은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새롭게 수립한 그룹 중장기 경영계획 'VISION 2030'에 따라 초일류 글로벌(Glocal)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4 년도의 경영방침은 'VISION 2030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BNK 금융그룹의 모든 임직원은 '바른', '새로운', '함께하는' 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기초 체력 강화, 자회사 경쟁우위 확보와 경영 효율화, 디지털 실행력 강화와 신성장 사업모델 다각화, 내부통제 혁신과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BNK 특화 상생금융 추진 및 ESG 경영 내재화를 실천하여 2024 년을 VISION 2030 달성의 초석을 쌓는 원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룹 중장기 경영계획 'VISION 2030'의 비전체계도>

2. ESG 이행 전략 및 현황

가. 2024~2026 중장기 ESG 전략

BNK 금융그룹은 'VISION 2030' 선포와 함께 새롭게 발표한 경영 비전 및 핵심가치의 지향점을 반영한 '2024-2026 중장기 ESG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미션, 비전, 전략슬로건은 그룹 중장기 경영계획과 일치시켜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환경을 보호하는 녹색금융 실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금융 확대',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바른금융 정착'이라는 3대 전략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12 개의 중점 영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전 그룹사의 ESG 경영 가속화를 위해 12 개 중점 영역과 연계된 'ESG Action Plan'을 수립하였습니다. BNK 금융그룹은 'ESG Action Plan' 전개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이행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금융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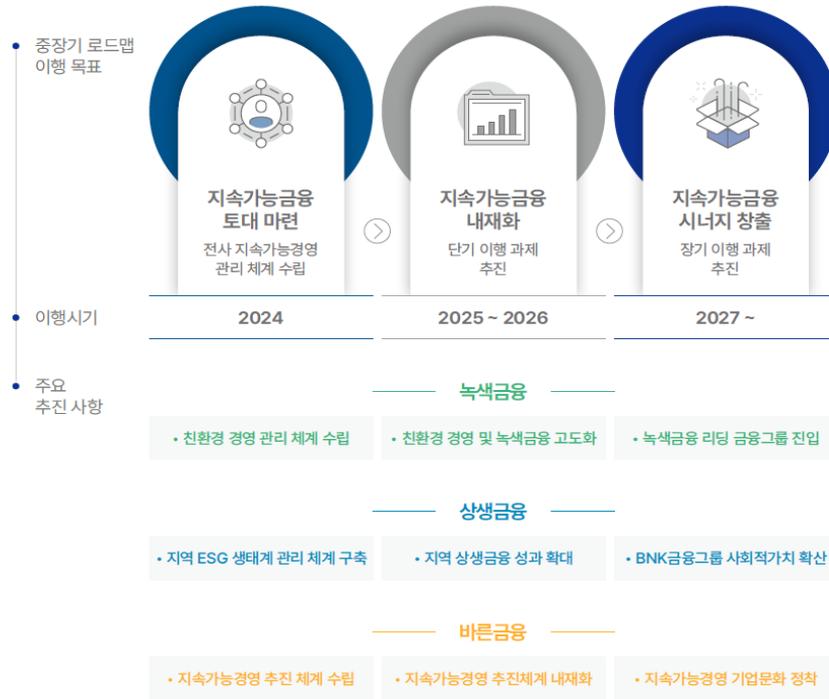


<그룹 ESG 전략체계도>

나. 중장기 ESG 로드맵

BNK 금융그룹은 '2024-2026 중장기 ESG 전략'과 함께 중장기 ESG 로드맵 또한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BNK 금융그룹은 2024 년을 지속가능금융 토대 마련의 원년으로 삼고 전사적으로 관리 체계 수립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후 지속가능금융 내재화를 거쳐 2027 년에 지속가능금융을 선도하는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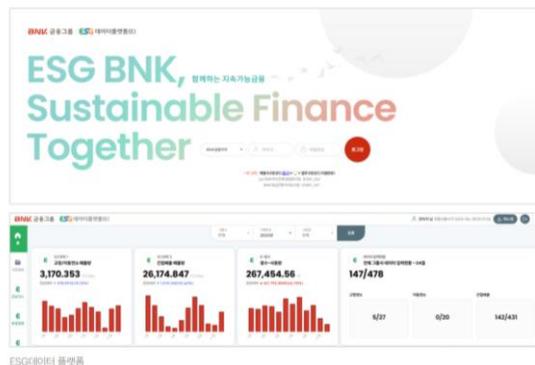


<중장기 ESG 로드맵>

3. 사례

가. (E)ESG 데이터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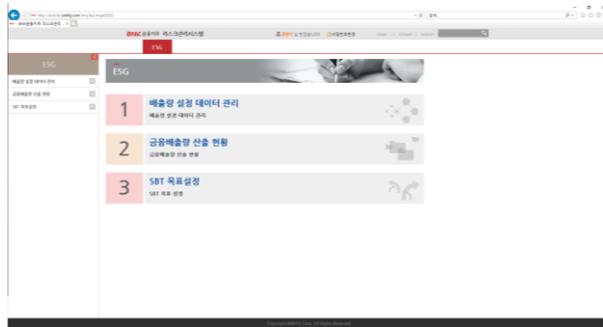
BNK 금융그룹은 2023 년 전 자회사의 친환경 경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ESG 데이터플랫폼’을 오픈하였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전 자회사의 친환경 경영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 년에는 자회사 내부 시스템과 ‘ESG 데이터 플랫폼’을 연결하여 환경데이터 뿐만 아니라 사회, 지배구조 등 ESG 전반의 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고도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친환경 경영 관련 데이터를 관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휴먼에러를 방지하고 ESG 데이터를 더욱 신속하게 취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SG 데이터플랫폼 화면>

나. (E)금융배출량 시스템

BNK 금융그룹은 직접 배출하거나 에너지 소비를 통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Scope 1&2) 이외에 투자와 대출을 통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배출량(Scope 3)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PCAF에 가입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2022년 금융배출량(Scope 3)을 측정해 오고 있으며, 2023년 보다 정확한 측정과 관리를 위해 금융배출량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금융배출량은 PCAF 기준으로 상장주식 및 회사채, 비상장주식 및 기업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대출, 차량대출 및 정부채권(2022년 12월 방법론 추가)의 7개 자산군으로 분류하고, 기준에 맞춰 측정하였습니다. 데이터 측정을 위해 업체의 공개된 배출량 정보와 함께 부족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PCAF에서 제공하고 있는 업종별 평균 배출계수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업체의 금융배출량은 Scope 1&2 뿐만 아니라 Scope 3까지 포함함으로써 2025년 예정된 전체 업종의 Scope 3 공개에 대해 사전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금융배출량 측정시스템 화면>

다. (E)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 지원

지난 7월에는 부산시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금융권 최초로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에 소재하는 탄소저감 기술을 가진 기후테크 중소벤처기업이 Net Zero를 지향할 경우 금융비용이 Zero가 되는 금융상품을 제공하였습니다. 협약에 따라 BNK 금융그룹의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2년간 저금리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 및 고객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고, 부산시는 2년간 이자비용 전액 지원하며,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평가료, 보증료 지원과 ESG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각 기관이 협업하였습니다. 지원 대상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탄소가치평가보증 탄소감축유형 중 외부감축기업에 해당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와 보증기관, 금융권이 각각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상생을 위한 좋은 시너지 사례입니다.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 지원' 협약식>

라. (S)동남권 중소기업 ESG 인재양성 교육

ESG 관련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울경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7월 19일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동남권 중소기업 ESG 인재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화두인 ‘글로벌 공급망 실사법 이해와 대응’ 및 ‘중소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다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수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에서 대면 교육 참석이 힘든 지역의 중소기업 임직원들을 위해 온라인 교육도 아울러 실시하여 동남권 대표 금융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중소기업 ESG 인재양성 대면 교육

동남권 중소기업 ESG 인재양성 온라인 교육

마. (S)위기극복 동행 프로젝트

BNK 금융그룹은 부산은행, 경남은행, BNK 캐피탈, BNK 저축은행 등 4개 자회사와 공동으로 자영업자와 금융취약계층(소상공인, 서민, 청년 등)을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위기극복 동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지원, 취약계층지원, 재기 지원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위기극복 동행 프로젝트’는 3년간 14조 7,205억 원의 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 침체의 장기화 우려와 물가 상승으로 야기된 자영업자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금리대출(7% 이상)을 쓰는 취약계층의 금리를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결과, 2022년에는 4조 5,262억 원, 2023년에는 6조 6,756억 원으로 목표 대비 성과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BNK 금융그룹은 ‘위기극복 동행 프로젝트’ 추진 기간동안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 지원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위기극복 동행 프로젝트 주요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지원 방향	세부 지원 내용	3개년 지원 규모
서민 금융 지원	대출 고객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유동성확보 중심의 지원	- 주택담보대출상품 금리 우대 지원 - 개인사업자 특화 신용대출 지원 - 서민금융 지원 확대 - 저금리 신혼부부, 청년 전세자금대출 지원 등	5조 9,350억 원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비용 절감 지원	- 코로나 19 피해 취약계층 상환유예 지원 - 개인사업자 및 개인 특례보증 지원 - 안심전환대출 공급, 금리상한형 주담대 지원 - 고금리 대출 상품 지원 - 고금리 취약 계층 금리감면 지원 - 취약계층 연체이자 감면 지원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7조 3,260억 원
재기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재기 마련의 기회 제공으로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 신용대출 119프로그램 - 고금리대출 대한 프로그램 운용 - 코로나19 소상공인 연체이자 감면 - 소멸시효 완성채권 탕감 프로그램 - 자영업자 전문컨설팅 지원	1조 4,595억 원
총 지원 규모			14조 7,205억 원

바. (S)BNK 봉사단 발족 및 BNK 사회공헌의 날 개최

BNK 금융그룹은 지난 3월 그룹 전 임직원으로 구성된 BNK 봉사단을 발족하였습니다. BNK 봉사단은 직접 손과 발로 지역을 위해 봉사하며, BNK 금융그룹 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지역상생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BNK 봉사단 발족

한편, 지난 1월 전 자회사가 참여하는 'BNK 사회공헌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전 자회사 임직원 2,000여명이 참석하여 대규모 봉사활동을 시행했습니다. 그 중 1,200명의 부산광역시 임직원은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필품 포장과 학용품 제작 및 헌혈, 의류 나눔 봉사 활동에 참석하였습니다. 울산, 창원 지역 임직원 600여명 또한 생필품 포장 봉사활동에 참석하였고, 서울 지역 임직원 200여명은 청계천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4월 두번째로 개최한 BNK 사회공헌의 날 행사에서 주 소재지인 부산, 창원, 울산, 서울 등에서 전 자회사 임직원 1,400여명이 참여해 지역의 환경정화 활동과 생태계 보전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BNK 금융그룹 임직원 700여명은 낙동강 생태를 위협하는 3,045㎡ 규모의 생태교란식물 군락지에서 양미역취, 환삼덩굴 등을 제거하고, 벌개미취, 쑥부쟁이 등 생태공원 자생식물 7종 2만 7,5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BNK 사회공헌의 날 행사(부산 벅스코, '24.1월)



BNK 사회공헌의 날 행사(창원, '24.4월)

4. SDGs 기여 목표 및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가. SDCs 기여 목표 및 대응현황

BNK 금융그룹은 경영활동과 SDGs 를 연계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글로벌 스탠다드 금융그룹으로서 이해관계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창조하고 공유하며 상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UN SDGs	대응 현황	UN SDGs	대응 현황
 1 모든 형태의 빈곤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 · 상생금융 상품 · 지역사회 공헌 	 10 불평등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3 건강과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경영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금융
 4 양질의 교육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 금융 교육 · 인재양성 	 13 기후변화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금융
 5 양성평등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성 정책 · 다양성 제고 프로그램 	 14 해양자원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다양성 보존 강화 체계 수립 · 생물다양성 보존 활동
 7 지속가능한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절감 노력 	 16 정의로운 사법제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 혁신 추진단 활동 · 윤리준법 경영
 8 경제성장, 완전 고용, 양질의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벤처 · 스타트업 기업 발굴 및 지원 · 지역 핵심산업과의 동반성장 지원 · 혁신 기업 금융 지원 · 기술금융 및 동산금융 투자 확대 		

나. 참여 중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	주요내용	가입 시기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GC UN Global Compact가 제시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에서의 10대 원칙을 기업이 내재화하도록 권장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시민 이니셔티브	2020.7
 CDP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로 전세계 주요 상장기업의 기후변화, 물관리 등 환경적인 측면에 관련된 정보공개 이니셔티브이자 평가기관	2021.5
 TCFD	기후 관련 금융 정보에 대한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국제기구이자,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기업의 재무정보에 반영해 공개하도록 권고하는 이니셔티브	2021.5
 UNEP FI	전 세계의 대표적인 300여 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로 금융산업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목표로 한 그 UNEP와 국제 금융채터간의 국제 파트너십	2022.3
 UN PRB	글로벌 은행 업계에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지속가능 경영을 촉진하기위해 개발된 프레임워크로 금융업계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국제협약	2022.3
 PCAF	금융기관의 자산 운용으로 인한 금융배출량 산정과 공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금융기관 주도 글로벌 이니셔티브	2022.3
 SBTi	과학기반목표이니셔티브 (Science-based Target Initiative, SBTi)는 파리기후협약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탄소 감축 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모니터링 하는 이니셔티브	2022.3

자세히 보기

UNGC 한국협회 & 회원사 뉴스

1. DS 단석, 'UNGC' 가입... 글로벌 수준 ESG 경영 본격화



- 글로벌 자원 순환 기업인 DS 단석이 '기업은 영원히 지속·발전하면서 인류사회에 공헌해야 한다'는 창업 이념에 근간을 두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ESG 경영의 일환으로 UNGC 에 가입함.
- 한승욱 DS 단석 회장은 "UNGC 가입을 계기로 고유의 ESG 가치를 발굴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ESG 경영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서울경제

2. 신한은행, 2500 억원 규모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 신한은행이 총 2500 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하며 자금조달·자금운영·시스템에 이르는 녹색금융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 녹색경제 활동을 촉진하는데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전함.

뉴시스

3. 포스코, 중소기업 금융지원 20년...동반성장과 ESG 경영



- 포스코는 중소 거래사들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고자 납품 대금 현금지불,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 납품단가 조정, 네트워크론 등 다양한 금융지원 활동을 운영하고 있음.
- 포스코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을 시작하여, 최근에는 철강업계 차원의 ESG 경영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며 지원 대상과 목적을 넓힐 계획임.

뉴스핌

4. 늘어나는 여성 리더... SK 하이닉스 '리더십 다양성' 앞장



- SK 하이닉스는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데 더불어, 국내 기술사무직 기준 2022년 2.1%였던 여성 임원 비율이 지난해 2.5%로 증가하는 등 여성 대표성 확대에 앞장서고 있음.
- SK 하이닉스는 2030년까지 여성 임원 비율을 5.7%, 여성 팀장 비율을 1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인사이드코리아

5. “생물다양성의 최대 적은 무관심”... 멸종위기종 보전 나선 현대제철



- 현대제철은 지역 사업장 인근의 생물다양성을 위해 사업장이 위치한 당진과 순천에서 생물다양성 인식개선과 멸종위기종 식별 및 보전활동이라는 테마로 ‘멸종위기종 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현대제철 관계자는 “생물다양성 보전은 기업과 지역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활동”이라며 “현대제철 임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고, 취약한 멸종위기종을 보전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이코노믹 리뷰

회원사 안내

1. 신규·재가입 회원

7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UNGC에 가입한 신규 회원사는 4개사입니다.

- 코오롱이앤피
- 한국 ESG 데이터
- (주)탑플래너스
- 마이오렌지 주식회사

2. CoP/CoE 제출회원

7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169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CoE (총 3개)

- (사)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 한국환경공단
- 환경재단

CoP (총 166개)

- | | |
|--------------------|---------------|
| • (주)KB 국민은행 | • 법무법인(유한) 지평 |
| • (주)LG 화학 | • 부산도시공사 |
| • (주)두산 | • 삼성 SDI |
| • (주)루시드프로모커뮤니케이션즈 | • 삼성바이오로직스 |
| • (주)비지에프 | • 삼성중공업 |
| • (주)세일인터내셔널 | • 서흥 |
| • (주)신세계 | • 성남도시개발공사 |
| • (주)씨제이이엔엠 | • 수협은행 |
| • (주)아모레퍼시픽 | • 스튜디오드래곤 |
| • (주)아진트랜스 | • 스프링온워드 |
| • (주)애큐온캐피탈 | • 신용보증기금 |
| • (주)에프앤에프 | • 씨앤씨인터내셔널 |
| • (주)에프앤에프홀딩스 | • 씨제이 씨지브이 |
| • (주)우리은행 | • 씨제이제일제당(주) |
| • (주)웨어밸리 | • 씨큐브 주식회사 |

- (주)유한양행
- (주)케이씨씨 글라스
- (주)케이씨아이
- (주)케이티
- (주)포스코
- (주)포스코인터내셔널
- (주)하나투어
- BGF 리테일
- DGB 금융지주
- ERM 코리아
- GS 건설(주)
- HD 현대건설기계
- HD 현대인프라코어(주)
- HD 현대일렉트릭
- HK 이노엔
- IBK 기업은행
- JB 금융지주
- KB 금융지주
- KB 증권
- LG 에너지솔루션
- LG 이노텍
- LG 전자(주)
- LS 일렉트릭
- LX 세미콘
- NH 농협은행
- NH 투자증권
- SAP 코리아
- SK 스페셜티
- SK 주식회사
- SK 네트워크(주)
- SK 바이오팜 주식회사
- SK 브로드밴드
- SK 이노베이션(주)
- SK 텔레콤(주)
- SK 하이닉스
- 강원도개발공사
- 에스엠엔터테인먼트
- 에스케이이엔에스 주식회사
- 에스케이케미칼
- 에이치엘비생명과학
- 에이치엘클레무브
- 에코나인
- 여수광양항만공사
- 영원무역
- 위메이드
- 유한킴벌리
- 이엔에이스위트호텔
- 이화다이아몬드공업(주)
- 인라이트벤처스(주)
- 인천시설공단
- 전남개발공사
- 주식회사 공공
- 주식회사 더씨에스알
- 주식회사 모어댄
- 주식회사 비엔케이금융지주
- 주식회사 아이이에스지
- 주식회사 연우
- 주식회사 청세
- 주식회사 카카오
- 주식회사 팬택씨앤아이
- 주식회사 헤세드릿지
- 지에스리테일
- 충청남도개발공사
- 카카오뱅크
- 카카오페이
- 코스맥스 (주)
- 코오롱인더스트리
-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코리아 (주)
- 콜마비엔에이치
- 콜마홀딩스 주식회사
- 퀀티파이드이에스지
- 클리오

- 경기주택도시공사
- 경상북도개발공사
- 고려제강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교보생명보험(주)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금호미쓰이화학 주식회사
- 금호석유화학
-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 네이버
- 넥센타이어
- 넷마블
- 노을
- 대구도시개발공사
- 대한항공
- 동아쏘시오홀딩스
- 동일고무벨트
- 두산에너지빌리티
- 두산퓨얼셀(주)
- 두원중공업
- 디알비동일
- 디엘이앤씨(주)
- 디엘케미칼
- 롯데렌탈(주)
- 롯데쇼핑
- 롯데정밀화학
- 롯데제과 주식회사
- 롯데홈쇼핑
- 마스텐투자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 발렉스서비스
- 발렉스특수물류
- 테크로스
-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 펄텍코리아
- 포스코이앤씨
- 포스코홀딩스
- 피앤씨랩스
- 피앤에스네트웍스
- 피앤에스로지스
- 한국가스기술공사
- 한국거래소
- 한국공항공사
- 한국석유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전력기술(주)
- 한국철도공사
- 한국콜마 주식회사
- 한국투자금융지주
- 한국평가데이터 주식회사
- 한세에스 24 홀딩스
- 한전 KDN
- 한전산업개발(주)
- 한화생명보험
- 해양환경공단
- 현대건설(주)
- 현대글로벌비스 주식회사
- 현대모비스(주)
- 현대자동차
- 현대제철 주식회사
- 현대차증권
- 현대캐피탈주식회사
- 효성첨단소재(주)
- 힐라홀딩스

※ 2024 년도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를 미제출한 회원사는 8 월 6 일 자로 회원사 상태(status)가 “미보고(Non-communicating)”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2024 년 12 월 31 일 이내에 제출 시 “Active” 상태로 회복됩니다. CoP 미제출 회원사는 2025 년 1 월 1 일 자로 “제명(Delisted)”되오니, 제출 기한 내에 이행보고서(CoP)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 회원은 기존 정책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 회원사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이내에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ed)”됩니다.

※ CoP/CoE 문의: 안성은 과장 (070-4327-9771)

3.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4. UNGC 한국협회 가입 안내

2007년 9월에 설립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다양한 심포지엄, 워크숍, 컨퍼런스 개최 및 기업 지속가능성/ESG 관련 연구·조사, 정책 제안, 네트워킹과 대화의 장 마련, ESG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하여 회원사의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이행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